

2018학년도 논술고사

인문계열



성 명	
전 형	
수험번호	

표지를 제외한 페이지 수 : 6 페이지



[문제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가)

영호가 먼저 은강전기 제일 공장에 들어갔다. 영희는 은강방직 공장에 들어갔다. 두 동생이 일자리를 잡은 것을 확인한 나는 은강자동차에 들어갔다. 삼남매가 똑같이 은강 그룹 계열 회사의 공장에 훈련공으로 들어갔다. 돌아간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일을 우리는 시작했다. 우리는 큰 공장 안에서 기계를 돌려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 중 하나에 불과했다. 그것도, 아직 기술을 익히지 못한 훈련공이었다. 우리는 그 집단 속에서도 최하 계급에 속했다. 어쨌든 우리는 큰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고, 집도 공장이 멀지 않은 곳에다 얻을 수 있었다. 신분에 맞게 우리는 빈민굴에서 살았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 노동이었다. 영호는 쇠로 만든 손수레에 주물을 넣어 날랐다. 영희는 훈련 센터에서 교육을 받으며 작업장으로 이어진 중앙 복도를 청소했다. 나는 승용차 조립 라인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부품들을 날라다주었다. 한 대의 승용차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품으로 만들어졌다. 선참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했다. 조립 라인 사람들은 나를 또 하나의 보조 기계로 보았다. 공장장에게는 노동자 전체가 기계였다. (중략)

영호도 나와 비슷했다. 영호는 연마 일을 하고 싶어 했다. 회전기 가공반에 있는 연마기 이야기를 나에게 하고는 했다. 연마도 고도의 정밀 작업이다. 정밀도 일천 분의 오 밀리미터 이내의 작업을 계속해내는 기계공들 앞에서 영호는 기가 죽었다. 아버지는 너무 힘이 없었다. 두 아들을 공업학교에도 보낼 수 없었다. 아버지의 시대가 아버지를 고문했다. 난장이 아버지는 경제적 고문을 이겨내지 못했다. 공업학교를 나왔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기능공으로 일했을 것이다.

-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나)

21세기의 사회는 규율사회*에서 성과사회*로 변모했다. 이 사회의 주민도 더 이상 ‘복종적 주체’가 아니라 ‘성과주체’라고 불린다. (중략)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서 규율의 패러다임은 ‘성과의 패러다임’ 내지 ‘할 수 있음’이라는 긍정의 도식으로 대체된다. 생산성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금지의 부정성은 그 이상의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능력의 긍정성은 당위의 부정성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 따라서 사회적 무의식은 당위에서 능력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 성과주체는 복종적 주체보다 더 빠르고 더 생산적이다. (중략)

긍정성의 과잉 상태에 아무 대책도 없이 무력하게 내던져져 있는 새로운 인간형은 그 어떤 주권도 지니지 못한다. 우울한 인간은 노동하는 동물로서 자기 자신을 착취한다. 물론 타자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그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이다. (중략)

성과주체는 노동을 강요하거나 심지어 착취하는 외적인 지배기구에서 자유롭다. 그는 자기 자신의 주인이자 주권자이다. 그는 자기 외에 그 누구에게도 예속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그 점에서 성과주체



는 복종적 주체와 구별된다. 그러나 지배기구의 소멸은 자유로 이어지지 않는다. 소멸의 결과는 자유와 강제가 일치하는 상태이다. 그리하여 성과주체는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강제하는 자유’ 또는 ‘자유로운 강제’에 몸을 맡긴다. 과다한 노동과 성과는 자기 착취로까지 치달는다. 자기 착취는 자유롭다는 느낌을 동반하기 때문에 타자의 착취보다 더 효율적이다. 착취자는 동시에 피착취자이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다.

- 한병철, 『피로사회』

* 규율사회 : 규율사회는 인간과 사회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사회로서, 금지, 규율, 강제 등 부정성의 패러다임을 특징으로 한다.

* 성과사회 : 성과사회는 개인의 자율적이고 자기완결적인 의사 결정에 의해 유지되는 사회로서, 능력, 자기 주도, 자기 경영 등을 특징으로 한다.

(다)

이른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그는 의자 고행을 했다고 한다.
제일 먼저 출근하여 제일 늦게 퇴근할 때까지
그는 자기 책상 자기 의자에만 앉아 있었으므로
사람들은 그가 서 있는 모습을 여간해서는 볼 수 없었다고 한다.

(중략)

끝없는 수행정진으로 머리는 점점 빠지고 배는 부풀고
커다란 머리와 몸집에 비해 팔다리는 턱없이 가늘어졌으며
오랜 음지의 수행으로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그는 매일 상사에게 굽실굽실 108배를 올렸다고 한다.
수행에 너무 지극하게 정진한 나머지
전화를 걸다가 전화기 버튼 대신 계산기를 누르기도 했으며
귀가하다가 지하철 개찰구에 승차권 대신 열쇠를 밀어 넣었다고도 한다.
이미 습관이 모든 행동과 사고를 대신할 만큼
깊은 경지에 들어갔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30년간의 장좌불립(長座不立)’이라고 불렀다 한다.
그리 부르든 말든 그는 전혀 상관치 않고 묵언으로 일관했으며
다만 혹독하다면 혹독할 이 수행을
외부압력에 의해 끝까지 마치지 못할까 두려워했다고 한다.
그나마 지금껏 매달릴 수 있다는 것을 큰 행운으로 여겼다고 한다.

- 김기택, 「사무원」



2018학년도 인문계열 논술고사

인문계열

[문제1-1] 제시문 (가)와 (나)는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인간 소외를 언급하고 있다. 두 글에 나타난 소외의 양상을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나누어 비교해서 설명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문제1-2] 제시문 (다)는 인간 소외 현상을 소재로 한 시이다. 이를 제시문 (나)의 ‘성과사회’라는 관점을 적용해서 분석하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문제 2]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 행동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추론한다. 이렇게 타인의 행동 원인을 추론하는 과정을 귀인(attribution)이라 한다. 이러한 귀인 과정을 통해 타인 행동에 대한 이해 및 반응이 달라지게 된다. 귀인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타인 행동에 대해 그 사람의 기질 및 성격과 같은 내적 특성에서 행동의 원인을 찾는 내부귀인과 다른 하나는 외적인 압력 및 사회적 규범과 같은 외적 환경에서 행동의 원인을 찾는 외부귀인이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식당에서 컵을 떨어뜨려 깨뜨렸을 때 다른 사람과 부딪쳐서 컵이 깨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외부귀인을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상당히 부주의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깨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부귀인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 내부귀인과 외부귀인이 모두 가능하지만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내적 특성으로 원인을 돌리는 내부귀인을 하는 경향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을 ‘기본적 귀인오류’라고 하는데, 이는 사람들이 타인의 행동의 원인을 귀인 하는 경우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힘을 과소평가하고 그 사람의 성격과 성향의 영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성을 말한다. 왜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가에 대해 2가지 설명이 제시되었다.

첫 번째 설명은 전경(figure)-배경(ground) 원리로 설명이 되는데, 사람들은 시각자극에 대해서 인식할 때 중요하고 의미를 가지는 부분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부분을 분리하여 인식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인식되는 부분이 전경이며 덜 중요하게 인식되는 부분이 배경이다. 이는 사람이 판단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데, 사람들은 중요하게 인식된 전경에서 획득한 정보에 의존하여 판단을 하며 배경으로 인식된 정보에 대해서는 의미부여를 하지 않는다. 이를 기본적 귀인오류를 설명하는데 적용시키면, 사람들이 타인과 상호 작용하는 경우에 있어 타인이 보여주는 행동은 전경으로 인식되는 반면 상황은 배경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경에 주목하게 되고 환경에는 덜 주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의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배경인 환경적인 측면은 간과하고 전경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 행동을 추론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설명은 타인의 행동에 대해 판단하는 경우 사람들은 최소한의 노력을 들여 판단을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 경우에 판단을 하는 데 있어 정보를 처리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여 판단하기보다는 두드러진 정보에 근거해서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경과 배경이 있는 경우, 전경만을 가지고 정보처리 하는 것이 전경과 배경을 모두 고려하여 정보처리 하는 것보다 인지적 노력을 덜 하게 되어 인지적 부담을 덜 느끼게 된다. 기본적 귀인오류는 이러한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처리 능력의 한계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배경으로 제시된 환경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인지적인 과부하를 피하기 위해 전경으로 제시되는 사람에게 초점을 두어 인지적 부담감을 줄이는 판단을 보인다는 것이다.

(나)

흔히 동서양의 문화 차를 이야기할 때 동양은 집단주의 문화이며 서양은 개인주의 문화라고 말한다. 개인주의는 서양 문화가 가진 가치로 집단의 정체성보다는 개인의 정체성, 집단의 욕구보다는 개인의 요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집단주의는 동양 문화가 가진 가치로 '나'라는 정체성보다는 '우리'라는 정체성, 개인의 욕구보다는 집단 지향적 욕구를 강조하는 문화 가치이다. 이러한 문화 간의 차이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결정한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한 연구에서 미국인과 중국인에게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는 장면을 제시하고 이들의 안구운동(eye movement) 패턴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주목한 정보에 더 오랜 시간 시선을 고정시킨다고 가정하였다. 연구 결과, 서양인들은 전경이 되는 물고기에 초점을 맞추고 더 오래 시선을 고정시키는 반면, 동양인들은 전경이 되는 물고기뿐만 아니라 해초의 종류, 물의 색깔과 같은 배경 정보에도 오랜 시간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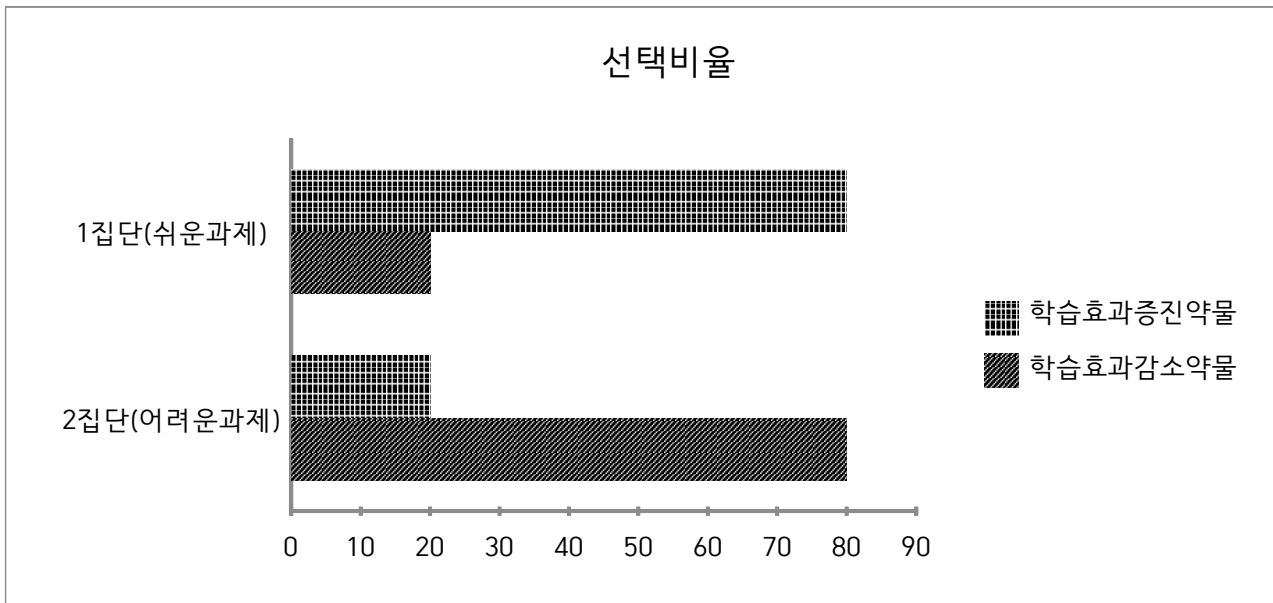
정서는 사람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정서는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흔히 행복, 기쁨과 같은 긍정정서와 슬픔, 불안과 같은 부정정서로 구분된다. 이러한 사람이 경험하는 긍정 및 부정정서의 경험은 사람들이 정보처리를 하고 그 정보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서 일치성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긍정정서를 추구하고 유지하려 하며, 부정정서를 느끼는 경우에 긍정정서를 느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행동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긍정정서를 느낀 사람은 현재의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인지적 노력을 기울여 에너지를 소모하는 행동을 피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반면, 부정정서를 경험한 사람은 부정적 정서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기 위해 자신이 경험한 사건에 대해 인지적 에너지가 소모되는 분석적인 사고를 하게 되어 사건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다양한 측면들을 검토하여 판단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라)

사람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무능하다고 보이는 것을 원치 않을 뿐 아니라 스스로 생각해도 무능하다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실패는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인 자존감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실패 상황에서 자신의 자존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전략들을 사용하는데, '자기 핸디캡 부여'(self-handicapping)는 이러한 전략들 중 하나이다. 자기 핸디캡 부여는 자존감 보호를 위해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일을 앞두고 미리 실패의 이유를 만들어 놓는 자존감 보호 전략을 말한다. 예를 들어 중요한 시험 당일 친구가 '공부 많이 했느냐'고 물어 보는 경우, '몸이 아팠다'거나 '시험범위를 잘 못 알았다' 등의 핑계를 대는 행동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에 그 실패의 원인을 자신의 능력과 같은 내부적인 원인보다는 운과 노력 부족과 같은 외부적인 원인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성을 보인다. 왜냐하면 실패의 원인을 능력과 같은 내부적인 원인 탓으로 돌리게 되면 자존감의 손상을 야기하는 반면, 실패의 원인을 외부적인 원인 탓으로 돌리게 되면 자존감 손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

한 심리학자는 학습능력과 약물효과라는 주제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먼저 실험 참가자들을 2개 집단으로 나눈 후, 두 집단에게 서로 다른 사전 설명을 제시하였다. 1집단에는 실험상황에서 간단히 풀 수 있는 쉬운 문제해결 과제가 제시될 것이라고 한 반면, 2집단에는 실험상황에서 다양한 지식이 요구되는 어려운 문제해결 과제가 제시될 것이라는 설명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실제 문제를 풀기 전에 실험참가자들 모두 (1집단, 2집단)에게 두 가지 약물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게 하였는데, 하나는 집중력을 증가시켜 학습능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이고 다른 하나는 집중력을 감소시켜 학습능력을 떨어지게 하는 약물이었다. 다음의 그림은 위의 연구를 통해 나타난 실험 결과이다.



[문제 2-1] 제시문 (가)의 기본적 귀인오류 현상을 (나)와 (다)의 관점에서 설명하시오.(단 전경-배경 원리에 기초하여 설명할 것)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500(±100)자로 할 것 (25점)

[문제 2-2] 제시문 (라)를 참고하여, 제시문 (마)의 실험결과의 의미를 해석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 포함하여 300(±100)자로 할 것 (25점).